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 아이폰



보도시점: 2026. 4. 27. 08:30 배포: 2026. 4. 27.(월) 08:30

“연구비로 자동차 타이어를 바꾼 교수가 있다?” 연구비로 타이어, 실내 자전거 등 사적용품 사들인 국립대 교수 적발

- 국민권익위, 국립연구기관 및 국립대학교의 연구비를 편취하여 자동차 타이어, 실내 자전거 등 개인 물품 약 5,500만 원어치 구입한 국립대학교 교수 적발
-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 약 3,300만 원을 현금화한 정황도…국민권익위,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기자재 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학교 1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 1교수는 A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B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B국립대학교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1교수는 이 점을 악용하여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 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1교수는 A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 원을 B국립대학교로 이직한 이후

에도 A국립연구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ㄱ교수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선 청소기, 마사지기 등은 ㄱ교수의 자택으로,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은 ㄱ교수의 지인에게 배송되기도 했다.

ㄱ교수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 원 상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¹⁾

- 이뿐만 아니라, ㄱ교수는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부패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정윤정 (044-200-7721)
		담당자	조사관	김경령 (044-200-7722)



#국민권익위 #심사보호 #부패심사 #부패신고 #보호보상 #공공재정
#연구비편취 #연구비횡령

1) 각종 생활용품 : 자동차 타이어, 커피 머신, 우유 거품기, 전기 포트, 전기밥솥, 허벅지 마사지기, 참치·햄 선물세트
스포츠 용품 : 테니스 공·그립·가방, 실내 자전거
전자제품 : 냉장고·냉동고, 공기청정기, tv, 세탁기·건조기, 무선 청소기,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